

전주시, 세계지방정부연합 가입 추진

15일까지 콜롬비아 보고타 UCLG 월드총회 참석, 회원가입과 위원회 활동 등 논의

전주시가 세계지방정부연합 가입을 통해 세계적인 도시를 넘어 우수한 정책을 선도하는 리더 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전주시는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와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우수정책 교류, 전주의 우수한 정책에 대한 해외 홍보 강화를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간의 연합 국제기구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가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유네스코 음식문화도시와 국제 슬로시티 등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전주시의 다양한 정책들이 전 세계의 주목을 끌면서 세계 다른 도시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12일부터 오는 15일 까지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리는 UCLG 월드총회에 참석, 회원가입과 위원회 활동 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세계지방정부연합으로부터 우수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정부로 평가를 받았다.

실제, 시는 올해 세계지방정부연합(UCLG)과 멕시코시티가 공동주최한 '문화 21 해외아워드'에 전주의 전통문화도시 프로젝트'를 주제로 응모해 우수시례로 선정됐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전주시의 사례는 경제와 문화, 환경의 차원을 고심하며 전통문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누가 현수막을 찢었을까? 12일 전주시 중화신동 한 아파트 앞에 걸린 현수막이 찢어진 채 봉지돼 있다. 이날 이 아파트 주변에 걸린 현수막 10여개가 누군가에 의해 찢어져 길바닥에 널부러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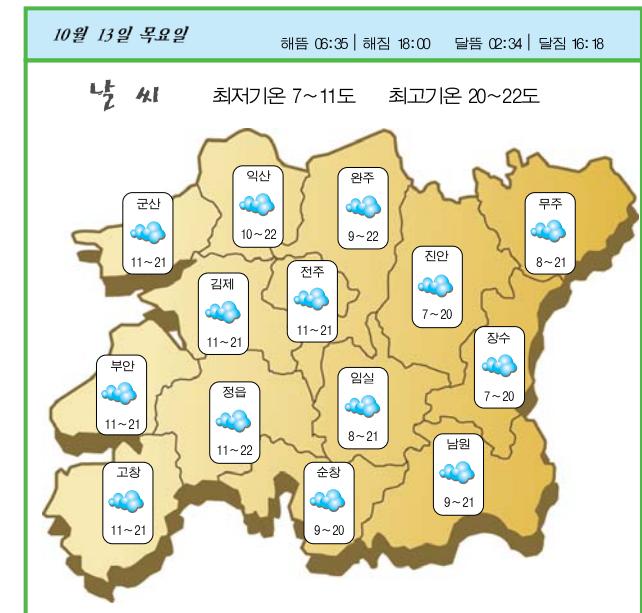
간의 관계를 다룬 훌륭한 프로젝트"라며 "다른 여려 활동과 더불어 전문적인 건축양식, 전통문화 관련 특별문화 사업을 촉진하려는 노력 등이 주목할 만하다"며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주시의 정책은 이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인정받을 정도가 되었다. 유

시는 올해 미국의 뉴욕 일본의 도쿄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전주 글로벌도시를 위한 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민선4기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시의 정책은 이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인정받을 정도가 되었다. 유

네스코 청의도시 연합, 슬로시티 등과 더불어 다양한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들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정책홍보를 할 예정"이라며 "세계 주요도시들과 네트워크 확대로 선진정책 공유, 해외 홍보 강화로 글로벌도시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재 기자



전북대-한풍제약 공동 연구·인재양성 협약

연구 중심의 약학대학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북대학교가 한풍제약과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와 인재양성 등에 나서기로 했다.

양 기관은 10월 12일 오전 11시 30분 전북대 본부 8층 회의실에서 전북대 이남호 총장과 한풍제약 조형규 본부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신약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그룹을 운영하고, 소유하고 있는 연구시설과 장비 등도 공동으로 활용키로 했다.

또한 약학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인턴 채용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연구·융합 중심의 약학대학 유치를 위해 약학대학 유치 추진단을 구성하고 신약개발연구소를 개소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 전북대에게 이번 협약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남호 총장은 "우리나라 약학교육 방향은 기존의 약사 배출을 넘어 임상·연구·약사 배출로 180도 달리져야 한다. 한풍제약과의 오늘 협약이 그러한 토대를 닦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김치 맛보고 배우며 체험하세요

전주시-한국음식문화협의회, 23일까지 '한옥마을 김치여행' 운영

국제슬로시티 전주에서 슬로푸드의 대명사인 전주김치를 맛보고 배우며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2016 전주비빔밥축제'에서 운영된다. 전주시와 (사)한국음식문화협의회는 2016 전주비빔밥축제가 끝나는 오는 23일까지 전주김치 교육과 전시, 한옥마을 김치체험여행 등으로 구성된 '2016 한옥마을 김치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한옥마을 김치여행의 첫 번째 프로그램인 K-Food 전주김치'는 총 10차

례에 걸친 강의를 통해 전주김치에 대한 이론과 손맛을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14일 안병자 신뱅이김치 대표의 김치강좌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지난달 21일 신동화 전북대학교 식품공학과 명예교수의 발효김좌를 시작으로 문을 연 전주김치 이야기 강좌에는 당초 예정인원(20명) 보다 많은 수강자가 몰리면서 현재 좁은 부두와 노부부 멀리 광주에서 온 수강생 등 총 31명이 강좌에 참여하고 있

다. 한옥마을 김치여행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2016 전주비빔밥 축제 기간 절정을 맞이하게 된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전시프로그램인 '전주김치 때깔 좀 보소'로, K-Food 전주김치' 수강생들이 강사와 함께 10여종의 김치를 담가 전시하거나, 수강생 개인이 그간의 강좌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김치전시작품을 담가 출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옥마을 김치여행의 세 번째 프로그램인 '한옥마을 김치체험여행'은

K-Food 전주김치' 강좌라는 특성상 전주시민의 참여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 전주비빔밥축제 기간인 오는 21일과 22일 이틀간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과 전주김치를 맛보고 함께 만들어보는 이야기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형식으로 운영된다.

교류의 한 수강생은 "이번 강좌를 통해 오늘 담가도 내일 담가도 맛이 달라지지 않는 김치를 담글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원광대 중앙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 개최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국내·외 전자정보자료를 알리고, 자료 이용방법 안내를 위한 2016년도 전자정보보람회를 11일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서 개최했다.

학생들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전자정보보람회는 201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는 원광대 중앙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총 17곳의 전자정보 제공업체가 참여했다.

참여 업체들은 광장에 마련된 부스에서 학생들에게 콘텐츠별 자료설명과 함께 이용방법을 안내했으며, 부대 행사로 도서전시회 및 할인판매, 책 나눔 교환 장터, 미니 북 만들기, 유생복장 체험(포토존)도 함께 진행됐다.

중앙도서관장 김재관 교수는 "원광

대 중앙도서관은 단순히 책 대출과 도서 열람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학술과 문화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문화 복합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전자정보보람회를 통해 학생들의 전자지원인지도 및 정보 활용능력을 비롯해 도서관 서비스 향상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2년 신축된 원광대 중앙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최첨단 디지털정보시스템을 갖추고 현재 140만 여권의 단행본 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자유열람실과 전자정보실, 디지털갤러리 등 자율적인 학습과 토론, 정보 수집과 공유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www.nonghyup.com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으로 힘차게 뛰겠습니다

농심을 품고

협동조합이념을 가슴에 품고

농업인과 고객을 위해 더욱 봉사하겠습니다

농민 속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열정과 의지로

농민 속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국민 곁으로

국민과의 공감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농협을 구현하겠습니다

농민속으로, 국민곁으로

NH 농협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장 조내수
전북지리산낙협 조합장 이안기

남원농협 조합장 박기열
남원원협 조합장 방금원

춘향골농협 조합장 임승규
지리산농협 조합장 최희철

운봉농협 조합장 서영교
남원축협 조합장 강병무